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당신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7. 20.(목) 16:30 배포 2023. 7. 20.(목)

수소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유지 기반 확충

- 「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-
- '24년부터 5년간 국비 627억 원 포함 총 1,918억 원 투입 -

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7월 20일(목) 서울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(위원장: 기획재정부 제2차관)에서 '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'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본 사업은 '24년부터 총사업비 1,918억 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28만㎡ 부지에 연료전지 기업 30여 개사가 입주하는 집적화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소재·부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시범 운전해볼 수 있는 성능평가단지 및 국산화 시범 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.

지금까지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제품 제조·설치·운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, 핵심 소재·부품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가격 절감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 본 사업을 통해 주요 소재·부품의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내재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,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"수소산업이 미래 신(新)산업으로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."라면서, "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"이라고 언급하였다.
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실 수소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한서 (044-203-3970)
		담당자	사무관	최현상 (044-203-39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개요

□ **(목표)**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촉진

□ **(총 사업비)** 1,918억원(국비 627억원, 지방비 670억원, 민자 621억원)

□ **(사업 기간)** '24~'28년 총 5년 간

□ **(수행기관)** · 산업통상자원부 : 사업 총괄
· 에너지기술평가원 : 사업 전담기관
· 포항테크노파크 : 세부사업 관리, 클러스터 추진단 운영

□ **(주요 내용)**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연료전지 기업 집적화단지와 장비동, 기업실험동, 국산화 시범동 등 조성



❶ 기업집적화 코어	❷ 소재부품 성능평가 코어	❸ 국산화 시범 코어
• 연료전지 부품·소재 등 관련 기업 집적화단지 (30개사 입주 가능 규모)	• 소재·부품의 검증, 인증 및 성능 평가장비 구축 (20종 26기) • 장비동, 기업실험동	• 자체개발한 소재·부품을 탑재한 연료전지 시범 운전 가능(최대 4MW급) • 국산화 시범동